

차기 主導株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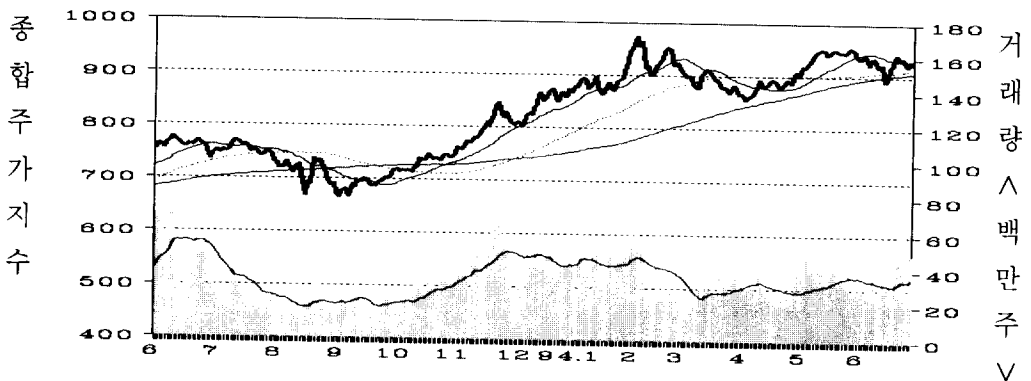
千日英*

급반등후 약세 지속

6월의 주식 시장은 장외 요인였던 북한의 핵사찰 수용 거부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종합 주가 지수는 한때 890.92 포인트를 기록하였으나 남북 정상 회담의 가능성을 계기로 6월 초 수준인 930선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월말에 오면서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파업 영향으로 노사 분규가 새로운 장외 악재로 등장했으며, 통화 관리 강화에 따른 자금 경색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시현하였다.

반등 모색할 듯

최근 노사 문제는 정부의 강경 방침 고수와 여론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해결 국면을 맞고 있다. 한편, 증시 주변 자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14~15%의 총통화 증가율을 지키더라도 3/4분기 중에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통화량은 6조 원을 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경색되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에는 발행 시장의 공급 물량도 거의 없어 증시 내부적인 여건의 호전으로 바닥권 매수 세력이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석사, 증권·금융 전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시 주변 여건의 호전

하반기 우리 증시는 꺾직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5 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경제 협력이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점증되는 증시 추가 개방 압력과 외국인 투자 한도 소진 등을 고려할 때 종목당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가 빠르면 8월 안에 2 - 3% 확대된 뒤 내년 상반기까지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외국인 투자 한도가 3% 포인트 확대될 경우에는 약 3조 3천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資 유치 법안이 통과되면 총 83조 원 규모의 사회 간접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며, 또 다소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금융 산업 개편도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한편 3단계 금리 자유화의 조기 실시와 개인 연금 시행은 금융 기관의 주식 투자 규모를 늘려 주식 시장의 기관화를 더욱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수급 전망도 매우 좋다. 공급 물량으로는 기업 공개와 유상 증자 물량이 각각 5천억 원, 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신규 공급 물량도 약 5천억 원 규모이고 전환 사채 가운데 주식 전환 가능 규모도 약 1조 2천억 원 정도로 총 예상 공급 물량은 4조 3천억 원에 이른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투신, 증권, 은행, 보험의 매수 여력은 4조 8천억 원이 예측되며, 여기에 외국인의 매수 여력 1조 4천억~3조 원을 합치면 예상 총 수요 규모는 6조 2천억~7조 8천억 원으로 공급 규모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차기 주도주에 주목

최근의 증시가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특정 부문에 매기가 단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블루칩에서 중가 블루칩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이어지는 主導株의 이전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장세가 새로운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次期의 주도주 후보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로 각광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경기 선도 업종의 블루칩 외에도 석유화학, 화섬, 음식료 업종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現시기는 본격적인 회복과 활황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 가운데 높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7월의 장세는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